

한국전쟁의 중립국행 포로 수기로 보는 제3지대의 불/가능성*

이 희 원**

1. 중립국행 전쟁포로 재고
2. 이념 이전의 사람들이 만난 이념 전쟁
3. 전장(戰場)이 된 수용소와 살아남은 '누혜'의 편린들
4. 체제 대결로 변질되는 중립국 의미
5. 제3지대의 존재 불/가능성 앞에서

<국문초록>

한국전쟁기 포로수용소는 참전의 계기나 정치이념이 다른 포로들이 뒤섞여 또 하나의 전장을 형성한 공간이었다. 1953년 자원송환 방식이 결정되고 중립국행을 선택한 포로들이 등장하면서 이들을 향한 수용소 내 폭력상은 더욱 격화되었다. 본 연구는 중립국행 포로들이 남긴 수기 네 편 즉 주영복의 『내가 겪은 조선전쟁 1, 2』와 『76인의 포로들1』, 문명철의 『슬픔도 고통도 짜우짜우』, 현동화의 『격랑의 세월 인도에 닳을 내리고』를 바탕으로 이들의 처지와 갈등을 관전사·관계사적 관점에서 조명한다. 전쟁 장치가 강제한 폭력과 죽음 속에서 이들은 정치적 가능성, 종교적 귀의, 세속적 이익 추구 방식으로 제3의 길을 모색했다. 하지만 포로송환 과정에서 이들이 남·북 모두에서 위협받고 필사의 탈출을 해야 했다는 점, 인도행 배에 탄 이후에도 중립국행 포로들 간에 심각한 이념 갈등이 지속되었던 사실,

* 이 논문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4S1A5B5A16027089).

**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전임연구원(homoludens111@hanmail.net)

냉전 지정학에 포섭된 각국의 외교적 한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던 것 등은 중립국행 자체의 불가능성을 노정한다. 그럼에도 이들의 존재 자체가 제3의 길에 대한 포기 없는 탐색의 증거로서, 우리 사회의 분열과 대립을 재고하는 계기를 제시한다.

* 주요어: 한국전쟁 수기, 중립국행 포로, 주영복, 문명철, 현동화

1. 중립국행 전쟁포로 재고

한국전쟁은 1950년에 발발한 이후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못한 전쟁으로, 여기서 기인한 집단적 사고방식은 여전히 한국사회 내 이념·정치·외교 측면의 갈등을 부추기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그 결과 소위 ‘종북몰이’식 언술이 일각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여전히 나오고 있고, 관련된 특정 국가나 그 국민에 대한 혐오 발언과 집단행동이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우리 사회는 한국전쟁을 제대로 기억하고 특정 관점에 의해 왜곡·편향되지 않는 기념의 방향을 잡아나가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한다.

한국전쟁의 발발과 진행 과정, 이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에 대한 연구는 학계에서 장기간에 걸쳐 축적되어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한국전쟁 관련 공식 역사는 오랫동안 북한이 남한을 향해 행한 극악무도한 일에 대해 성토했고 국군 및 유엔군의 용맹과 애국심을 기념해왔다. 문제는 아군과 적군의 흑백 논리식 구분으로 점철된 이러한 한국전쟁 이해 방식이 실제 전장의 복잡한 회색 지대를 외면하는 결과를 양산했다는 점이다. 그 회색 시대에는 부상병, 탈영병, 남과 북 각각이 보낸 공작원과 스파이, 피난민, 잔류 시민, 부역자와 억류자, 여성, 어린이, 외국인 등이 있었고, 전쟁 개념 바깥의 카오스적 전장(戰場)이 있었다. 전쟁 발생의 복잡한 역사적 사실들과 국가 간 이해관계 등도 이 회색시대에서 은폐되었다. 소수 의견으로 묻혔던 이러한 기억은 한국사회가 생사를 오가는 전장으로부터 시기상 멀어지고 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론화되어 한국전쟁의 면모는 계속해서 그 폭을 넓혀오고 있다.¹⁾ 또

한 이 전쟁을 제2차대전과의 연관 속에서 살펴보거나 국가폭력의 입장에서 고찰하는 노력 등을 통해 한국전쟁 공식 기억을 심화하는 연구도 축적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통해 우리는 한국전쟁의 실상이 어떤 상황을 양산했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전쟁 자체의 정체를 가차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탐색하는 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앞서 살펴봤듯 냉전 시대의 극단적 이념 갈등과 국가 권력자·군인을 중심으로 한 전쟁 기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회 내 움직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한국전쟁과 관련한 기억과 기념의 방향을 민주적 관점으로 안정화하기 위한 현실적 노력이 여전히 충분치 않음을 의미한다. 한국전쟁에서 기인한 다양한 기억들을 공식 역사 속에서 유의미하게 기념하고, 이를 추상적인 방식에 한정하지 않고 구체적 감각으로 재생산되는 경험·기억의 장으로 전환하는 시도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때다.

전쟁포로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하게 짚어야 할 존재다. 한국전쟁에서도 다수의 전쟁포로가 발생하는데 이 전쟁이 국제전이었던 만큼 많은 참전국 국민들이 전쟁포로가 되어 전쟁터 각지에서 갇혔다. 남한의 경우 북한군이 150,420명이고 중국군은 21,074명에 이르렀다.²⁾ 포로들은 대부분 접전지에 임시로 마련된 수용소에 모였다가 이후로 거제도·부산·용초도·제주도 등 후방 지역의 좀더 크게 만들어진 수용소로 이송·수감되었다. 수용소를 관리하는 유엔군이나 국군은 제네바협정에 따라 포로들을 대우한다는 지침을 표방하고 있었지만, 포로 처우의 문제는 간단치 않았다.

근대 이후의 전쟁 형태인 총력전에서 전장의 적은 기본적으로 죽어야 하는 대상이지 나와 동등한 생명을 가진 인간이 아니다. 그런데 그 전장에서 적을 ‘포획’하고 나면 이 존재는 ‘당연히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특정 영역에 살려두고 관리하는 대상이 된다. 즉 전쟁포로는 인간이 아닌 희생되

1) 하영선, 『한국전쟁의 새로운 접근: 전통주의와 수정주의를 넘어서』, 나남, 1990; 강인철,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백산서당, 1999; 이완범, 『한국전쟁: 국제전적 조망』, 백산서당, 2000;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6; 정병준, 『한국전쟁-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돌베개, 2006; 김학재, 『판문점 체제의 기원』, 후마니타스, 2015 등.

2)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선인, 2010, 34쪽.

어도 좋은 호모 사케르였다가 다시 인간으로 되돌릴 것을 예비하는 존재로, 전쟁의 바깥 또는 전쟁의 끝에 대한 암시다. 전장에서서의 부상자나 포로, 민간인 처우를 위한 제네바협정이 19세기 말부터 조인·보완되어 온 역사가 전쟁 포로라는 이 복잡한 존재에 대한 인류의 난감함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한국전쟁으로 발생한 전쟁포로들은 이 전쟁이 갖는 성격의 독특함에서 기인한 보다 복잡한 면모를 갖는다. 이 전쟁은 불과 얼마 전까지 같은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던 식민지민이 국제적 세력 관계 속에서 급격히 적대 세력으로 양분되어 벌어진 열전이였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포로들의 성격이 간단히 규정될 리 만무하다. 참전의 계기도 입장도 다른 이들을 아군과 적군으로 구분하는 명분은 정치이념이었지만 이 역시 명백한 기준점이 될 수 없는 ‘믿음’의 ‘정도’에 대한 문제였다. 수용소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이 이념의 문제는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얼마든지 왜곡·악용될 수 있었고, 이에 의해 수용소 내에서는 관리자와 포로 사이는 물론, 포로들 사이에서 온갖 폭력 사태가 양산되었다. 유엔군·국군의 입장에서도 가뭇둔 적의 무리들을 인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느끼기는 어려운 노릇이었고, 전쟁으로 인해 산재한 문제 해결에 인력을 충당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포로수용소를 관리하는 것에 군인 인력을 집중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수용소는 모든 영역이 24시간 관리·통제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포로들은 수용소 내 곳곳에 있는 통제의 사각지대에서 전쟁을 방불하는 폭력 사태를 일으켰다.³⁾

이후 벌어진 휴전협정 과정에서 포로송환 방식이 강제송환이 아닌 자원송환 방식으로 결정되면서 수용소 내 혼란상은 더욱 가중되어 갔다.⁴⁾ 포로들 사이에서 누가 어디를 선택하는가 하는 문제는 포로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포로들 사이의 이념 전쟁으로 표면화했다. 남한과 북한 당국은 포로들이 어느 쪽을 더 많이 선택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자기 체제의 우월성과 정당함을 드러내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포로들을 최대한 끌어오기에 골몰했다.

3) 정찬대, 「국민 만들기의 폭력적 동화」,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4) 한국전쟁에서 포로 교환이 자원송환방식을 채택하게 된 것에 관한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김학재, 『판문점 체제의 기원』, 후마니타스, 2015 및 장세진, 「은유로서의 포로」, 『상허학보』46, 상허학회, 2016; 김혜인, 「망명의 기록, 난민의 시간」, 『상허학보』48, 상허학회, 2016 참조.

이때 등장한 남한도 북한도 아닌 중립국을 선택한 포로 88명⁵⁾의 존재는 양 진영 모두에 큰 문제였다. 남한도 북한도 싫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로 이미 양 진영이 표방하고 있는 이념의 정당함이나 우위성이, 사실은 많은 가능성 중의 하나일 뿐이지 목숨을 건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중립국행 포로들은 한반도를 장악하고 세계를 휩쓴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그 어느 쪽도 사람들을 모두 아우르지 못한다는 점을 명백하게 하며, 세상이 두 진영으로 나뉠 수 있음을 전제로 발발했던 이 전쟁 자체가 사실상 부조리했음을 드러내었다. 이런 점에서 이들 중립국행 포로들이 어떤 경험과 생각 속에서 인도행을 선택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한국전쟁을 입체적 안목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중립국행 포로들에 대한 이해를 이들이 남긴 수기를 중심으로 심화해보고자 한다.

오늘날 확인할 수 있는 중립국행 포로들의 기록으로 단행본 형태를 갖춘 것은 네 편이다. 주영복의 『내가 겪은 조선전쟁 1, 2』(고려원, 1991)와 『76인의 포로들1』(대광출판사, 1993), 문명철의 『슬픔도 고통도 짜우짜우』(도서출판 두란노, 1997), 현동화의 『격랑의 세월 인도에 닦을 내리고』(현동화 구술, 정동현 씬, 나무와 숲, 2003)가 그것이다. 이 수기에 대한 연구는 한국전쟁에서 포로의 위상을 고찰하는 논문들에서 문제적인 이름으로 호명되고 있다. 특히 주영복의 수기는 중립국행을 선택한 포로의 의식을 국제적 안목과 이념에 대한 비판 의식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연구자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김경학은 인터뷰와 수기를 중심으로 인도에 정착한 중립국행 포로들의 생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⁶⁾ 서은주는 대항의 기록으로

5) 중립국송환위원회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88명은 북한인 74명, 한국인 2명, 중국인 12명으로 나와있다. 그러나 이후로 중국군에 분류되어 있던 포로 한 명이 만주에서 중국인민지원군으로 징용된 조선인으로 판명되어 한국인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선우, 『한국전쟁기 중립국 선택 포로의 발생과 성격』, 『역사와 현실』90, 한국역사연구회, 2013, 338쪽; 전갑생, 『88인의 포로, 떠난 자와 돌아온 자, 남아서 반공투사가 된 귀환포로들』, 『MINJOG21』117, 민족21, 2010, 12 참조.

6) 김경학, 「인도 정착 한국전쟁 중립국 선택 포로의 이야기」, 『인도연구』9(1), 한국인도학회, 2004 참조.

서 중립국행 포로들의 정체를 수기 중심으로 소개했고,⁷⁾ 장세진은 포로를 다룬 문학과 수기 등을 포괄적으로 정리하면서 주영복의 수기와 인터뷰에서 그가 처했던 중립국행 포로들이 겪어야 했던 억압 상황을 확인하고 그의 국제주의적 시각에 대해 살펴보았다.⁸⁾ 임세화는 이념의 이름으로 역사 속에 호출되는 중립국행 포로들이 자기 서사를 통해 이를 타파하고자 한 역동을 고찰했으며⁹⁾ 김혜인은 중립국행 포로들이 민족국가 개념을 깨뜨리는 문제적인 존재였지만 냉전 체제로 강고하게 빚어진 세계질서 속에서 이들이 안주할 곳이 결과적으로 없었음을 주영복의 수기를 통해 확인한다.¹⁰⁾

이러한 기존 연구는 중립국행 포로의 발생 및 이들의 이력에 대한 중요한 의미 규정을 하고 이를 통해 한국전쟁과 냉전 체제에 대한 깊이 있는 조망을 가능하게 했다. 본고는 이러한 기존 연구 성과들을 토대로, 중립국행 선택 포로들의 수기 내용을 관전사(貫戰史)적·관계사(關係史)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수기들 간의 상호텍스트적 관련성과 이 작품들이 1990년대 이후의 한국사회 속에서 출간된 맥락 등을 바탕으로 이들이 처한 상황과 갈등 양상의 의미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중립국’은 그 자체로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이라는 이념 논리에서 만들어진 또 하나의 이념이다. 이념에 의해 빚어진 전쟁과 폭력의 경험을 ‘중립국’이라는 또 다른 이념으로 넘어서고자 한 이들 중립국 선택자들의 응전과 좌절의 기록을 통해 제3지대로서의 중립국행이 갖는 불/가능성을 살펴보자.

2. 이념 이전의 사람들이 만난 이념 전쟁

해방 정국 속 한반도 정세는 매우 혼란스러웠다. 제2차대전 이후 냉전 체

7) 서은주, 「한국전쟁의 기억과 글쓰기-거제도 포로수요소 체험을 중심으로」, 『작문연구』12, 한국작문학회, 2011 참조.

8) 장세진, 앞의 논문.

9) 임세화, 「포로라는 이념: 한국전쟁포로서사와 자기구성의 가능성」, 『상허학보』46, 상허학회, 2016.

10) 김혜인, 앞의 논문 참조.

제가 세계의 새로운 세력 대결 구도를 양산했고,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 양 세력이 충돌하고 있는 접전지로, 전략상 양국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지대가 되었다. 한반도 내부 역시 이념 갈등의 외피를 입은 주요 세력 간 대결이 두 개의 정부 수립으로 이어진 상태였던 만큼 한반도 내 전쟁 발발의 긴장도는 높아졌다. 전쟁을 치르는 동안 식민지거나 해방기를 통해 가졌던 남북 공동의 역사적 사회적 과제들은 희미해지고 한반도는 이념을 중심으로 하는 급격히 달라진 세계사적·정치적 맥락 속에 놓이게 된다. 문제는 시대 흐름의 급격한 변화가 개인의 삶에 끼치는 영향이었다. 매일의 일상과 세계 판도 변화의 속도가 불협화음을 낼 때 개인은 스스로 구축해온 경험과 기억의 산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공동체 내에 안착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한국전쟁의 휴전협정 과정에서 중립국행을 결심한 포로들의 삶에는 이러한 복잡한 상황이 반영되어 있었다.

이들이 남긴 수기는 자신들이 살았던 시대적 특성, 즉 일제 강점기부터 한국전쟁기 사이에 뒤얽힌 주변국과 주요 강대국 사이의 중첩되고 반전하는 관계의 역사를 담고 있다. 그런 만큼 이 수기들은 필자가 드러낸 내용과 숨긴 내용을 당대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초에 수기 『내가 겪은 조선전쟁』 1, 2권과 『76인의 포로들1』을 남긴 중립국행 포로 주영복은 글에서 밝히고 있듯 1946년부터 군에서 러시아어 통역병으로 활동을 했고,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는 인민군 공병국 훈련참모 직분을 가졌던 소좌다. 이러한 그의 표면적 정체는 한국전쟁 이후의 상황에서 볼 때 명확히 남한의 적이다. 하지만 시기를 더 거슬러 올라가서 볼 때 그가 말하는 자신의 정체는 만주를 근거지로 자랐고 항일운동가의 후손이자 일제의 황군으로 전장에 끌려가 전쟁을 치르다 미군과 소련군에 황군이 밀리는 사이에 도망쳐 나온 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를 할 수 있었기에 우연히 소련군의 말을 통역해주다가 군에 통역병으로 배속되어 인민군으로서의 이력을 이어오게 되었다고 밝힌다. 광복 이후 북한 지역에서 소련군은 남한에서 미군이 그랬던 것처럼 일본과 적으로 싸웠던 세력으로서 한반도에 해방을 가져온 자들이었다. 그런 만큼 이들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던 존재라는 뜻이다.

이러한 그의 이력은 일제 강점기와 해방기에서 식민지 조선인이 필연적으로 혹은 강제로 가져야 했던 삶의 조건으로서 충분히 현실감을 갖는다.¹¹⁾ 특히 황군으로 참전했던 것은 그가 북한 체제 안에서 공산당이 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던 주요 조건이었고, 휴전 후 북한으로 복귀한다면 숙청 대상이 되도록 만듦을 위협요소이기도 했다. 수기 곳곳에 주영복은 북한 공산당이 개인의 자유를 목살하는 점이나 소련군이 민간인에 가했던 횡포를 비판하며 이에 저항했던 모습을 제시해 자신이 북한 사회에 맞지 않음을 강조한다. 이는 그가 남한에서 이 글을 출간한다는 점에서 이념적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라 볼 수 있겠지만, 꼭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가 보여준 삶의 이력에서 기반한 당시 권력 핵심층이 가진 폭력성과 억압상을 비판한 지점으로도 충분히 읽힌다.

1997년에 『슬픔도 고통도 짜우짜우』를 출간한 문명철의 경우에는 조선인들이 모여 살던 중국 훈춘의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다. 기독교 집안이었기에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 군인에 의해 억압받았고, 해방 이후에는 북한 공산당에 의해 핍박받으며 온 가족이 압박이 덜한 곳을 찾아 계속해서 이리저리 거주지를 옮겨 다녔다는 사실이 수기에 소개되어 있다.¹²⁾ 도주 중에 빚어진 살벌한 양상은 북한 체제와 결코 공존할 수 없었던 많은 식민지 조선인의 고난을 보여준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 열아홉 살의 문명철이 징집을 피해 몇몇 마을 청년들과 집을 떠나 산에 숨어 있던 상황, 결국에는 거의 강제 징집에 가까운 형태로 군에 합류하게 되는 과정 진술은 당시 북한 지역에서 있었던 강제 징집의 현황을 확인하게 해 준다.¹³⁾ 물론 그가 입대하자마자 군인

11) 중립국행 포로들이 남긴 기록이나 증언 속에서 주영복과 비슷한 방식으로 전쟁에서 전쟁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이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자연스럽다. 한수산의 르포르타주 「제3국으로 간 반공 포로들의 그 후」(『마당』46, 1985)에는 중립국행 포로 중 한 명인 지기철과의 대화가 집중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는 주영복이나 현동화의 수기에서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만큼 제3국행 과정에서 필자들과 깊은 연관성을 보인다. 특히 그는 일제 강점기에 관동군으로 있었고, 광복 이후에는 중국 팔로군이 되었다가 북한 인민군엔 편입되어 한국전쟁 발발 이후 남한으로 와서 전쟁을 치르다가 귀순해 포로가 되었다. 이는 주영복의 삶의 여정과도 매우 유사한 맥락을 가지며, 이러한 유형의 생애 사는 당시 많은 포로들이 공유하고 있었다.

12) 해방기 이후 북한에서의 기독교 억압에 대해서는 김병로, 「북한 종교정책의 변화와 종교 실태」, 『북한선교』2, ACTS북한선교학회, 2003; 남덕우, 「북한 종교 정책에 따른 신앙생활 실천방안」, 『신학과 철학』42, 한국실천신학회, 2014 등 참조.

통솔자에게 호명되어 부대의 대표가 되었다는 점¹⁴⁾은 과연 그가 강제로 군인이 된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전장에 끌려온 젊은 세대가 있었다는 점은 북한에서 내려왔던 인민군이 다양한 입장을 배경으로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명철이 수기 전반에서 국가나 민족에 대한 소속감 보다는 가족과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유대감을 지향하고 있는 양상은 이러한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할 때 이해가 된다. 생명이 위태로운 위기의 순간마다 그를 구해주는 힘은 국가 시스템이나 민족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믿음 혹은 기독교인들의 도움이었던 것이다.

현동화의 구술을 수기로 엮어 2003년에 출간한 『격랑의 세월 인도에 닦을 내리고』를 보면 그는 1932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제법 부유한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나 일제가 만주사변 이후 청일전쟁, 제2차대전을 일으키는 과정에 영향 입으며 자랐다. 일본어에 능숙했고 도쿄를 동경해 그곳으로 가는 꿈을 가지기도 했으며 독립운동가인 듯한 사람을 봤던 기억을 쓰기도 한다. 제2차대전 막바지 상황에서는 전쟁으로부터 안전한 곳을 찾아 일가가 떠나기도 하지만¹⁵⁾ 학교에서 전쟁물자제조 현장에 투입되었던 기억에 대한 진술은 제2차대전 당시 식민지 조선의 학생이 처해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기보다는 자기 삶의 조건에 스스로를 맞추어 사는 것에 별 고민이 없었던 것으로 기술된다. 그런 만큼 해방기에는 미국과 소련의 문물을 선망하면서 사회적 성공을 꿈꿨던 사실을 적어두었다. 집안의 재산을 북한 공산당이 몰수해 어려움에 처한 사실을 진술할 때에도 현동화는 크게 사회 비판적 의식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이후로 그는 모스크바 유학의 기회를 잡기 위해 사동군사학교¹⁶⁾

13) 북한에서 한국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민군을 모집한 양상은 자발적 모병제를 표방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강제성을 띠고 있었다. 서홍석, 「조선인민군 총원정책의 변화와 정체성 형성」, 『역사와 현실』104, 한국역사연구회, 2017; 김진호, 「국가수립 전후 북한의 병역제도와 모병 실태」, 『군사』13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4 등 참조.

14) 문명철, 『슬픔도 고통도 짜우짜우』, 도서출판 두란노, 1997, 47쪽.

15) 이영훈 「북한의 화폐경제: 이행과 변화전망」, 『통일정책연구』15(1), 통일연구원, 2006; 김성보, 「전쟁과 농업협동화로 인한 북한 농민생활의 변화」, 『동방학지』143,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8 등 참조.

16) 사동군사학교는 1952년에 북한 사동 지역에 지어진 북한군 고급 지휘관 양성 학교였다.

에 입학했고, 그렇게 참전하게 된다. 이러한 서사 양상은 그가 이 수기를 읽는 사람에게 그 자신이 현실 비판 인식이 강하지 않고, 사회·정치적 관점과도 상관없이 개인적 영달을 이루는 것에 집중하는 평범한 사람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제3국행을 선택한 포로라는 정치적 결과물인 자신의 삶을 기술하면서 자신이 오직 개인의 영달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급변하는 사회 상황에 의해 기존의 관점을 버려야 했던 불합리에 대해 평범한 사람이라면 느꼈을 혼란마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현동화가 처한 상황의 비범함이 감지된다.¹⁷⁾

이처럼 중립국 선택 포로들의 수기는 인민군이지만 단순히 인민군이라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이들의 입체적인 정체를 보여주는데, 이 양상은 이들의 '귀순' 과정 진술에서 다시 한번 강조된다. 주영복은 9월 16일 즉 인천 상륙작전이 개시된 다음 날, 상급자로부터 후퇴 명령이 내려지자 북으로 가지 않고 귀순을 했다. 그는 국군을 향해 “오래도록 자유를 갈망해 왔고 정의의 편에 서고자 대한민국을 찾았습니다. 한국군은 어디 있습니까?”¹⁸⁾라고 하며 국군의 입장에서 인민군과 싸울 의지를 보인다. 그러나 국군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온갖 욕설과 포로 취급이었고, 그는 “절망과 자포자기에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의 전신.

17) 장세진은 앞의 논문에서 포로수용소에서 대다수의 포로들은 포로들 간의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이념 갈등 양상이 전체 포로 중 일부의 일이었을 수 있음에 대한 논의를 강용준의 작품을 토대로 제시하며, 충분히 납득이 된다. 그런데 현동화의 경우 이념적으로 강성이었던 지기철과 수용소에서는 물론 인도에서도 가깝게 지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지기철의 인터뷰 발언을 보면 그가 수용소에서 겪었던 폭력상은 그 정도가 매우 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수산, 앞의 글, 232-233쪽) 그리고 정병준에 의하면 지기철은 극렬한 반공 포로로서 포로수용소 내에서 남한 정부로부터 일종의 지령을 받고 가혹한 폭력을 행한 자였다. (정병준, 「중립을 향한 '반공포로'의 투쟁: 한국전쟁기 중립국행 포로 76인의 선택과 정체성」, 『이화사학연구』56, 이화사학연구소, 2018, 6쪽) 그런 만큼 지기철 및 그와 행동을 같이한 현동화의 중립국행이나 그 과정에서 벌이는 행동에 대해서는 이면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하듯 현동화가 포로수용소의 실상에 대해서 아예 몰랐다고 발언하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국가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회상할 때 표면적으로는 실상을 말하지 않는 일종의 방어기제로 읽힌다는 임세화의 의견(임세화, 앞의 논문)을 토대로 현동화의 수기를 이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1』, 고려원, 1991, 516-517쪽.

빠”¹⁹⁾진 채 포로로서의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 문명철의 경우에는 1950년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탈영해 도주를 시작했다고 적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국군에 잡혔을 때 기독교인임을 나타내는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자신을 “피난 가고 있는 기독교 청년”²⁰⁾이라고 한다. 다행히 그를 잡은 국군 중에 북에서 내려온 기독교인이 있어 그에게 우호적으로 대해준다. 그러나 수용소에 들어간 이후로 그가 어떤 이력을 가졌는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직 인민군이라는 정체로 규정되어 억압과 폭행에 노출된다. 부산의 동래 포로 수용소에 오게 되어서는 “피난하다 검문해서 잡은 사람을 왜 피난민 수용소가 아닌 포로수용소에 보내는 것일까?”²¹⁾라고 진술하기도 한다. 현동화는 인천상륙작전이 개시된 이후 9월 20일경 연천에서 화천으로 이동하던 중 부상을 당하고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들어와 이틀을 치료하며 지내다 국군이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국군 제6사단에 귀순하고 그곳에서 치료도 받는다. 6사단의 정훈 장교 정창모 소령이 금화 출신의 친구였기에 그의 주선으로 일이 잘 진행되어 그 부대의 업무에 동참해 숨어 있는 패잔병에게 투항을 권유하는 일을 맡기도 했다고 기술한다. 그러나 병세가 깊어지면서 국군 부대로 인계되고 포로 신분이 되어 서대문 형무소로, 그리고 부산의 포로수용소로 실려 오고 그대로 포로가 되었다고 한다.²²⁾

이처럼 이들은 인민군이 되는 상황이나 포로로 잡히는 과정에서 식민지 조선의 상황과 2차대전, 해방기로 이어졌던 관전사(貫戰史)적 흐름 속에서 세계 정세와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고 있었고, 각자의 맥락에서 남측과 북측의 진영 중에 자신의 입장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상정했음이 보인다. 그 결과 주영복은 남측과 북측의 체제를 비교해 보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찾아 남한을 선택했다. 문명철은 애초에 기독교인으로서 자발적 참전자가 아니고, 게다가 탈영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남한의 적인 인민군 전쟁포로일 수 없다고 여겼다. 현동화는 이미 북한에서 귀순해 국군과 함께 북한군을 향해 귀순을 독려하는 일을 하고 국

19) 위의 책, 519쪽.

20) 문명철, 앞의 책, 67-68쪽.

21) 위의 책, 81쪽.

22) 현동화 구술, 정동현 씀, 『격랑의 세월 인도에 닦을 내리고』, 나무와 숲, 2003, 68-69쪽.

군 병원에서 치료도 받았음을 진술하며 자신의 포로 정체성을 부정한다. 이런 여러 입장에서 이들은 자신들이 남한 사회에서 수용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생각과 달리 국군 혹은 유엔군에게 이들은 단지 전세가 불리해지자 미리 항복한 ‘포로’로 강제 지정될 뿐이었다.

이들이 기록하고 있는 이 발언들은 중립국행 선택이 남한 사회에서 조국을 버린 ‘배신자’로 호명되는 부분에 대한 ‘억울함’의 호소이자 그럴 수밖에 없었음에 대한 ‘변명’인 측면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²³⁾ 특히 전쟁에서 가까운 시기일수록 이들의 입장은 그러한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이들이 수기를 책으로 묶어내기 시작하는 1990년대 이후에는 보다 민주화된 한국 사회 내에서 자신의 처지를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기에서 확인되는 이들의 관전사적·관계사적 위치는 국적과 진영 논리에 한정해 공식화한 한국전쟁의 기억을 진영 논리 이전의 역사 흐름 속에서 재고하게 하고, 전쟁 장치²⁴⁾ 바깥에서 구체적 전장을 입체화하는 대항기억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3. 전장(戰場)이 된 수용소와 살아남은 ‘누혜’의 편린들

중립국행을 선택한 이 필자들이 겪은 포로수용소 상황은 기존 연구에서 잘 밝히고 있듯 “제2의 전선”²⁵⁾이었다. 이는 한국전쟁 동안 남한에 만들어졌던 포로수용소가 전쟁터에서 잡혀 온 적군이 격리된 곳이라는 단순한 관점으로는 그 실상을 담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포로수용소에는 전장에서 생포

23) 정병준, 앞의 논문, 2018; 임세화, 「한국전쟁의 의도적 망각과 전쟁포로의 기억 투쟁」, 『동서인문학』67, 계명대 인문과학연구소, 2024 등 참조.

24) 아감벤은 개인의 행위, 몸, 욕망, 삶 등을 포획하고 지배·통제하기 위해 작동하는 제도와 규범, 지식, 권력의 네트워크 전체를 ‘장치(dispositif)’라고 지칭한다. 중립국행 포로들의 수기 내용에서 우리는 전쟁을 중심으로 개인의 삶과 공동체 가치 논리를 규율하는 장치로서의 전쟁 장치의 바깥은 살피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대항 기억이 될 수 있다. Giorgio Agamben, What Is an Apparatus? and Other Essays, 양창렬 옮김, 『장치란 무엇인가』, 난장, 2010 참조.

25) 조성훈, 앞의 책, 16쪽.

된 인민군·중공군뿐 아니라 전쟁에 의해 발생한 온갖 사람들이 공존했다.²⁶⁾ 이 수기들의 필자와 같은 귀순자와 탈영병이 있었고, 같은 포로 중에도 사상적으로 친공포로가 있는가 하면 반공포로도 있었다. 게다가 수기에서 드러나듯 포로수용소 내부를 정탐하기 위해 일부러 포로가 된 인민군, 북으로 넘어간 국군, 부역자로 잡힌 민간인, 피난민 등도 있었기에 포로수용소 포로들은 서로 적대적이기까지 한 자들이 한 공간에 아무런 구분 없이 혼재해 있는 상태였다.²⁷⁾ 수용소 내부는 이들 온갖 색깔의 포로들이 각자의 명분이나 생존을 위해 목숨을 건 폭력을 서로에게 휘둘렀고, 협잡과 배신, 음모가 난무한 상황이었다. 주영복이나 문명철, 현동화가 수기에서 밝히고 있는 수용소에서 겪은 일을 보면 이들이 남한도 북한도 아닌 중립국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의 많은 부분도 이 수용소 안에서 겪은 고통스러운 상황에 의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²⁸⁾

한편 유엔군이나 국군의 입장에서 수용소 운영·관리 양상도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었다. 전쟁포로에 대한 품위 있는 대우는 사실상 기대하기 힘든 것이다.²⁹⁾ 본고에서 다루는 수기에서도 국군들의 포로 폭행 사태는 비밀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물론 표면적으로 포로수용소는 1949년에 만들어진 제4차 제네바 협정에 따라 운영됨을 표방했고, 수용소에서 유엔군이나 국군이 포로들을 억압적으로 통제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큰 틀에서 포로의 하루 일과는 확정해두었지만 그 일과 중에 구체적으로 포로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포로들의 대표자가 어떤 식으로 선출되고 그들이 수용소 내 물자를 어떻게 분배하는지, 감시자의 시선이 잠

26) 위의 책, 40-64쪽. 포로수용소에는 북한군, 전 국군 포로, 민간인인류자, 투항자와 귀순자, 의용군, 중공군 포로, 피난민 등 온갖 사람들이 혼재되어 섞여 있었다.

27) 휴전 회담이 지속되고 포로 송환 문제가 불거지면서 1952년이 되면 반공포로와 친공포로를 수용소별로 분산 배치하지만, (김학재, 앞의 책 참조) 이 수기들을 살펴볼 때, 이념적으로 친공포로와 반공포로를 완벽하게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두 포로 수용소 간 이동도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8) 임세화, 앞의 논문, 2024; 김경학, 앞의 논문; 이선우, 앞의 논문 등 참조.

29) 전갑생, 「거제도포로수용소 설치와 포로의 저항」, 『제노사이드연구』2, 한국제노사이드연구회, 2008; 김학재, 「전쟁포로들의 저항과 반공오리엔탈리즘-한국전쟁기 유엔군 포로수용소 내 사건들을 중심으로」, 『사람』36, 수선사학회, 2010 등 참조.

든 밤에 수용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등과 관련된 사항은 포로들의 자의에 의해 통제되도록 했다. 그 과정에서 포로들은 군 계급이나 각자 드러내는 이념의 강도, 남한 정부나 북한 공산당과 연결된 스파이 포로들의 지령 등에 의해 폭력적으로 통제되고 있었다.³⁰⁾ 포로들은 수용소 밖 군인이나 유엔군은 물론 포로들 내부의 세력 관계에 대해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만인간의 투쟁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장용학이 1955년에 발표한 단편소설 「요한시집」에서 말했듯 “세계의 孤兒가 된 포로병들”³¹⁾이었다.

특히 수용소 내 친공포로와 반공포로 사이의 갈등은 수용소를 또 하나의 전장으로 만드는 핵심적인 요인이었다. 현동화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하지만 그 누구보다 강력하게 이념 의지를 몸소 실천했던 시기철과 행동을 같이 했기에 그 역시 이러한 사태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주영복이나 문명철이 기록한 수용소에서 겪은 폭력 사태는 결국 이들이 이념적 선명성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들의 수기를 보면 수용소는 흰 깃발 아래의 반공포로와 붉은 깃발 아래의 친공포로가 전장을 방불케 하는 화력으로 수용소 내 전쟁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친공포로는 반공포로의 손에, 반공포로는 친공포로의 손에 죽었다. 때문에 수용소 포로들은 자신이 기거하는 막사가 어느 세력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하루에도 그 운명이 돌변했다. 포로들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 함부로 자신의 정체성을 말해서는 안 됐고, 수용소와 자신의 이념 정체성이 일치한다고 안심할 수도 없었다. 「요한 시집」은 바로 이 시절의 포로수용소를 배경으로 하며, ‘인민의 영웅’으로 활약했던 인민군 ‘누혜’라는 포로를 등장시키고 있다. 그는 또 하나의 전장이 된 포로수용소에서 적기가 한 소절도 부르려 하지 않을 만큼 수용소 내 전쟁에 참전하기를 거부하고 그저 하늘 보기만 좋아한다.³²⁾ 이에 그는 주변 포로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결국에는 수용소의 철조망에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었으

30) 오세희, 『65포로수용소』, 만인사, 2000; 조성훈, 앞의 책; 장세진, 앞의 논문; 임세화, 앞의 논문 등 참조.

31) 장용학, 「요한시집」, 『장용학 소설선』, 지만지, 2014, 39쪽.

32) “그는 의용군이 아니고 이북에서부터 쳐내려온 괴뢰군이였다. 그런데 수용소가 어수선해졌을 때에도 적기가(赤旗歌)는 부르려 하지 않고 틈만 있으면 누워서 푸른 하늘을 쳐다보기를 좋아했다.”(위의 책, 37-38쪽)

며, 그의 시선은 포로들에 의해 훼손되어 버려진다. 전장이 아닌 포로수용소 안에서 전우들에 의해 외면받고 고통당하다 죽음으로 내몰린 ‘누혜’는 당시 포로수용소에서 다수의 포로들이 폭력적인 정체성 정치에 노출되어 있었고 이해받지 못한 죽음에 이르는 이들도 상당했을 것임을 짐작케 한다. 사람에게 아군이냐 적군이냐 하는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적의 죽음을 당연시하는 전쟁 장치 속에서 인간의 생명은 전쟁의 수단이 되고, 개개인이 만들어온 고유한 삶의 이력과 가치는 무의미해진다. ‘누혜’를 비롯해 그를 괴롭히는 포로들은 죽음이 아닌 한 전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전쟁에 갇힌 포로들의 모습을 충격적으로 형상화해준다. 중립국을 택했던 주영복이나 문명철, 현동화 등이 수용소에서 살아낸 모습 속에는 ‘누혜’가 느꼈을 절망, 혹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어려움을 견디고자 한 의지가 가로놓여 있다. ‘누혜’가 죽지 않고 살아남아 포로송환장에 나섰다면, 그 역시 중립국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주영복, 문명철, 현동화는 이처럼 참혹한 상황에서 각자의 내적 추동력을 갖고 중립국행을 결정한 것이다. 그 힘이 있었기에 이들은 폭력적 이념 갈등과 죽음으로 가득한 수용소에서 남한도 북한도 아닌 중립국을 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영복은 수기 전반에서 북한 체제의 억압상에 찬성할 수 없는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남한의 민주적 사회 분위기를 긍정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전쟁을 수행하고 포로수용소에서 살아내는 과정에서 남한이든 북한이든 같은 방식으로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으며, 가진 것 없는 사람은 양측 모두로부터 심신의 자유를 통제당하고 가혹한 폭력 앞에 놓여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함을 확인하고 있기도 하다.³³⁾ 주영복은 이러한 양 진영에 대한 비판 의식을 포로수용소 안에서 미국의 한 정보소 위와의 인터뷰로 드러내었다가 ‘포로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그는 늘상 하나의 세력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취하고 ‘민주주의’와 ‘자유’, ‘개인’의 가치를 지향할 수 있는 공동체를 꿈꾸었음을 수기에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게 “대한민국=민주주의”이기에 긍정하는 것이지 반공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기도 한

33) 김경학, 앞의 논문, 105쪽.

다.³⁴⁾ 즉 그는 국적보다 민족적 영토에서 살고자 한 의식이 강했던 셈이다.

1990년 6월 『시사저널』에서 「광장」의 저자 최인훈과 나눈 대담에서 자신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중립주의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측과 북측 모두에서 뿌리내리기를 포기하고 “이젠 중립국이 더 좋은 것 같”다고 발언하게 되는 것은 이처럼 새로운 가능성의 영토를 탐색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를 ‘중립국’으로 향하게 했음을 재확인하게 해준다. 이러한 주영복의 발언은 그가 1962년에 동아일보를 통해 발표했던 수기 「망향」에서 조국을 떠난 자신의 입장을 “평화스러운 남한의 땅을 총탄과 동포의 피로 짓이겼던 것이 사실이며 지금 나는 회오의 눈물에 젖어 이 수기를 적는다”³⁵⁾고 하며 스스로를 민족의 죄인으로 규정했던 측면과는 사뭇 달라진 부분이다. 이는 1960년대 당시 한국사회의 이념적 경직성 속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의 한계가 반영된 것이라면, 1990년대 이후에 발행된 수기들이나 신문 인터뷰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개진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³⁶⁾ 그럼에도 그가 자신의 중립국행을 자신만의 사상적 판단과 결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음은 공통적이다.

문명철은 명확하게 ‘기독교’에서 자기 정체성의 근거를 찾는다. 그에게 포로수용소에서의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자들과의 교류, 그리고 수용소 교회의 운영과 관련된다. 그는 부산 동래에 있는 14육군 야전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면서 성경 읽기와 영어 공부에 전념하는 삶에서 다소간의 안정감을 느낀다.³⁷⁾ 그곳에서는 지옥같은 수용소를 잠시나마 떠나 기독교 교리를 환자 돌봄으로 실천하고, 정신적 지향을 성경 공부를 통해 확인하며, 다른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영어공부를 통해 기대·기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에 귀의한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의 부모님이 그에게서 보고 싶어 했던 모습이기도 했기에 그는 이러한 생활에서 삶의 정당성을 찾을 수도 있었다. 이처럼 그는 전투 부대에서 탈영한 이후

34)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2』, 고려원, 1991, 396쪽.

35) 주영복, 「망향」, 『동아일보』, 1962. 6. 29.

36) 김혜연, 「망명의 기록, 난민의 시간」, 『상허학보』48, 상허학회, 2016 참조.

37) 문명철, 앞의 책, 112쪽.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그리고 포로수용소에서 온갖 위험에 휘둘렸지만 목숨을 건질 때마다, 목숨 부지의 이유를 '신'에 의탁해 확인했고 종교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갔다. 포로 교환이 진행되는 와중에 '중립국'도 선택지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했던 고민의 기준이 된 것도 기독교였다. 즉 그는 부모님이 계시는 북한에 가고 싶지만 그곳에 가면 기독교 신자로서의 삶을 살 수 없고, 남쪽에 간다면 반공포로로 받는 억압이 이어질 것이며 부모님도 안 계시므로 살아갈 자신도 없다고 여긴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야 중립국으로 가서 어떤 어려움이라도 견뎌내며 일하고 공부해서 성공해야겠다는 의지”³⁸⁾를 갖는다. 이때 그가 추구하는 '공부'와 '성공'은 물론 기독교인으로서의 모습이다. 이처럼 그는 가족의 사랑과 신을 향한 의지를 내면에서 굳건하게 결합하고 국가나 민족 가치를 넘어 중립국 선택에 이른 것으로 진술되어 있다.

하지만 지기철의 문명철에 대한 증언을 살펴보면 그가 “남도 북도 싫어서 제3국을 선택”했고, “나누어 대립하고 또 나누어 대립하고 그렇게 가르고 갈라서서 마지막에 뭐가 남겠다는 것”이냐며 “어느 한 곳에 소속된다는 것이 다른 하나를 배척해야 한다는 그 영원한 이분법이 저는 정말 싫었”³⁹⁾음을 토로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전쟁이 배태한 남과 북의 이념 대립과 갈등에 대해, 그리고 그것이 야기한 폭력 사태에 대해 문명철이 깊이 분노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그가 문명화된 1990년대 한국 사회를 향해 자기 삶을 증언하면서도 기독교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에만 집중하는 모습은 문제적이다. 이는 그가 제3국을 선택하고 인도, 브라질, 미국 등을 돌며 목사가 되기 위해 처절하게 공부한 것이 실상 트라우마적 전쟁 기억에서 기인한 '반응'적 행동이었음을 드러내기를 거부한 것으로 읽힌다. 그 점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이 온전히 신에 복종한 경건한 삶을 살아왔다고보다, 전쟁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로 오랜 세월 그 상처에 괴로워한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점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의 인간적 고민을 이 수기에 담기를 원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8) 위의 책, 178쪽.

39) 한수산, 앞의 글, 234쪽.

현동화의 수기는 그의 내면이 차분히 제시되기보다는 생략되고 충분히 서술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 편이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다분히 현실적인 사람임을 강조하며 이념이나 정치 등 까다로운 문제에 대해서는 속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런 만큼 그는 자신이 중립국을 택한 이유로 북한의 일 가족은 죽었을 것 같으니 혈혈단신 남한에 남아 억압당하며 살기보다는⁴⁰⁾ 중립국 멕시코에 갔다가 미국에 가기를 기대했다고 제시한다.⁴¹⁾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임신양명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살아가는 것 이외에 그가 특별히 의미를 두는 가치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대신에 그는 다른 동료들이 왜 중립국을 택했는지에 대해 소개하는 것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소설 『광장』의 이야기를 꺼내며 주인공 ‘명준’과 같은 이유로 중립국을 택한 자는 ‘주영복’이고 ‘지기철’은 자유롭게 기업을 해 보고 싶어서, ‘최인철’은 북의 공산 통치도 싫고 남한은 수용소에서 보여준 인권유린이 싫어서 제3국을 택한 것이라고 기술한다. 이후로 그가 보이는 삶의 궤적은 그 자신의 증언 수기나 주영복의 『76인의 포로들』에 현동화가 등장하는 맥락에서 확인할 수 있듯 포로수용소에서부터 함께 한 지기철과 행동을 같이 했다.⁴²⁾ 때문에 그도 지기철과 더불어 한국 정부와 관련된 일을 많이 했고, 한국과 인도 사이에서 무역을 통해 사업도 일군다. 이처럼 2000년에 내어놓은 그의 수기에서 그가 택한 중립국행은 다분히 현실적 이유였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그가 왜 이러한 세속적 성과를 중립국에서 실현하고자 했는가 하는 점은 충분히 진술되지는 않는다. 앞서 언급했듯 그는 포로수용소에서부터 반공포로 정체성을 부르짖던 지기철과 함께 하고 있었기에 수용소 내 폭력 사태에 대해 모를 수 없었을 것임에도, 일부러 관련 증언을 피해 갔다. 하지만 그러한 증언을 제기하고 있는 동료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모순적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와 인터뷰를 진행한 채록자와의 라포 형성에서 갖는 한계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고, 이미 1962년에 대한민국 국적을

40) 이동현, 「한국전쟁 후 ‘반공포로’에 대한 기억과 기념」, 『동아시아문화연구』40,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원, 2006.

41) 현동화, 앞의 책, 87쪽.

42) 김경학, 앞의 논문, 101쪽 참조.

취득한 상태에서, 국적의 의미망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는 그 어떤 정체성도 원천적으로 남기지 않겠다는 과민한 반응이 발언을 제한한 것일 수도 있겠다. 또 하나 생각해볼 수 있는 가능성은 중립국에 오기 전부터 한국 측과 긴밀했던 지기철과 더불어 한국 정부와 이면의 관계를 이어왔기에 비밀을 엄수한 것일지도 모를 일이다. 사실이 어느 쪽이든 현동화의 활동은 대한민국의 바깥에서 대한민국을 외치는 기묘한 모습을 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이처럼 중립국행 포로들은 그들이 전장에 합류한 과정에서부터 한반도를 떠나 중립국으로 향하게 되는 일련의 여정 모두에서 일관된 이름으로 호명될 수 없는 복잡한 삶의 이력과 가치관, 그리고 전쟁 이후로 쌓여온 경험들이 중첩되어 구성된 관계사(關係史)적 정체성을 발신하고 있었다. 중립국을 택한 이들 다양한 얼굴의 살아남은 '누혜'들은 한국전쟁이, 그리고 포로수용소가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전쟁과 폭력 사태 속에 밀어 넣었는지 섬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일깨운다.

4. 체제 대결로 변질되는 중립국 의미

주영복, 문명철, 그리고 현동화의 수기를 살펴보면 결국 이들의 중립국 선택은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제각각의 이유에 의한 것이었지만 그 근거에서 작동한 힘은 죽음에의 공포가 가득했던 한반도의 연속된 전쟁 경험과 포로수용소의 폭력상 앞에서 스스로 생존을 보전하고 보다 안전하게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땅을 찾고자 하는 적극적 탈주 의지의 결과였던 것으로 읽힌다.

주영복의 경우 이념적으로 북한 체제를 긍정하지 않았고, 북으로 돌아가더라도 그가 황군이었던 이력 때문에 숙청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문명철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현동화는 포로수용소에서 이미 반공의 입장을 명확히 했기에 북에서 살아남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이들은 남쪽에 남는 것을 택하기도 쉽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국군들이 전쟁포로에게 보여 주었던 강력한 폭력성에 대한 증언 속에 남한 사회 전반의 분위기에 대한 이

들의 두려움이 보이기 때문이다.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쟁포로 이력은 남한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적대감을 줄 것임을 수용소에서 이미 경험한 것이다. 이 수기들 외에 각종 인터뷰 등을 살펴보더라도 이들 중립국행 포로들의 처지가 이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남한도 북한도 이 포로들이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꿈을 펼치며 살 수 있는 곳이 아님을 짐작한 상황에서 이들의 중립국 선택은 제3의 가능성을 품은 마지막 대안이었다. 하지만 당시 강고한 이념 대립에 사로잡혀있던 세계 정세 속에서 이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 어려움의 첫 관문은 포로송환이 이루어진 시기에 비무장지대에서 이미 발생한다. 휴전 회담이 진척되고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중립지대로 이동한 뒤 친공포로와 반공포로 사이의 폭력 사태는 점점 더 가중되는 상태였다. 이는 남한과 북한의 체제 대결의 대리전 성격을 가졌다. 반공포로의 경우 이전에 거제도나 부산 등지의 포로수용소 안에 있을 때에도 국군과 연계해 친공포로를 공격했던 것처럼 이러한 연계가 중립지대에서도 작동하고 있었다.⁴³⁾ 친공포로들 중에도 일부러 포로가 되어 포로들을 이끌던 인민군이 있었기에 중립지대에서의 공작은 있었을 것이다. 본고에서 살펴보는 수기에서도 포로 심사중에 인민군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반공포로 쪽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한다. 게다가 양 진영 모두를 부정하고 중립국을 선택하는 일은 양측 모두로부터 공격받는 위험한 일이었다.⁴⁴⁾ 친공포로와 반공포로로 양분화된 수용소 안에 등장한 제3의 영역을 선택한 자들은 양측 모두에게 희생분자이자 배신자였다.

주영복은 두 편의 수기를 통해 중립지대에서 그가 반공포로에 의해 심각한 공격을 받았던 상황을 상술한다. 그는 자신의 중립국행을 비밀로 하고 있었지만 의기투합했던 지기철이 그의 이름을 누설해 발각되고, 그는 “포로의 포로”⁴⁵⁾가 되어 ‘반공포로’에게 폭행당하고 그들이 만든 감옥에 갇힌다. 그

43) 주영복, 『76인의 포로들』, 대광출판사, 1993, 42쪽; 이선우, 앞의 논문, 331쪽.; 김혜연, 앞의 논문, 51쪽.

44) 김경학, 앞의 논문; 양준석, 「1954년 제네바정치회의에서의 ‘중립국’ 문제」, 『한국정치학 회보』57, 한국정치학회, 2023 참조.

러다 시간을 들여 상처를 치유하고 기회를 보다가 죽을 고비를 넘겨 철조망 건너 중립국 막사에 당도한다. 문명철은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던 중립지대로 들어간 지 일주일 만에 친한 동료로부터 중립국행을 권유받고 고민 끝에 결심한다. 그리고 삼엄한 눈길을 피해 무사히 중립국행 막사에 도착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했다. 동료와 합을 맞추어 그가 밤에 아픈 시늉을 하고 친구의 부축을 받아 병원으로 가는 것을 연기한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안전하게 수용소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현동화의 경우에는 중립지대의 테러가 있었다고 말은 들었지만 역시 자신은 큰 테러 없이 무사히 지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는 그가 수기에서 보인 예의 생략의 방식으로 한국 사회에서 읽힐 그의 이야기에 반공포로들의 폭력상에 대해서는 구태여 거론하지 않고자 한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 한다. 주영복의 증언대로라면 그가 반공포로들의 포로가 된 것은 지기철 때문이었고, 현동화가 그와 긴밀한 사이였음을 염두에 둘 때 그가 이러한 사태로부터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표면적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 이러한 사태와 그가 동떨어져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이처럼 이들 중립국 선택자들은 수용소에서부터 이미 중립국행의 가능성이 안전하게 확보되지 않은 전장에 내던져진 상태였다고 할 수 있겠다.

이념에 갇힌 세계로부터의 탈출을 어렵게 한 두 번째 관문은 인도행 배를 탄 중립국행 선택자들 내부에서 발견된다. 언뜻 생각했을 때 중립국행을 선택한 88인은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인도 마드라스로 향하는 중립 지대 아우스트리아호에 몸을 실었기에, 이제 이념 갈등에서 벗어나 긴장을 풀고 새로운 미래를 그리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주영복의 수기를 보면 일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

박기천(본명 지기철-인용자)은 얼마전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던 20명의 포로들을 떠올리는 것 같았다. 그들은 배가 인천 부두를 떠나자마자 '그레왈' 소령에게 인도 영주를 표명하고 반공단체로부터 별도의 기거를 요청하고 나섰던 것이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달랐다. 나는 중립국을

45)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 2』, 1991, 406쪽.

택한 이상 각자 자기 운명을 죽음의 대가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⁴⁶⁾

인용문은 박기천 즉 지기철과의 대화를 주영복이 복기한 것이다. 두 사람 간의 언쟁은 지기철이 중립국 선택자들 중 인도에 정착하기를 바라는 일부 포로들이 마드라스로 떠나는 배가 출발하자마자 이들의 통솔자인 인도군 소령 그레월에게 반공포로들과 자신들을 분리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발생했다. 당시 인도는 한국사회 내에서 사실상의 공산 국가로 인식되어 있었기에 강한 반공 의지를 표명했던 지기철은 인도에 정착하기를 바라는 이들을 “이탈자와 변절자”로 상정하고 “죽여야”⁴⁷⁾ 한다며 분노했다. 인용문은 주영복이 이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대목이다. 지기철과 주영복이 이 언쟁을 하는 동안 “인도를 영주지로 택한 포로들은 우리와 100m나 더 멀리 떨어져”⁴⁸⁾ 있으면서 지기철 등 반공포로 측에 겁먹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⁴⁹⁾ 즉 인도행 배에 탑승한 그 순간에도 반공측이 아닌 자신들은 반공측에 의해 적으로 상정될 것이고 포로수용소에서 벌어졌던 것과 같은 공격이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남과 북을 떠나 인도로 가면서도 이념에 의해 패가 갈리고 숙소를 달리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위기를 느낀 이 면모는 포로수용소에서 숙소별로 친공포로 막사와 반공포로 막사가 생성되고 세력을 형성했던 상황과 겹친다. 그 이름만이 남미파와 인도 잔류파로 바뀌었을 뿐이었다.⁵⁰⁾

46) 주영복, 앞의 책, 1993, 51쪽.

47) 위의 책, 51쪽.

48) 위의 책, 55쪽.

49) 각주17번에 제시했듯 지기철은 극렬한 반공포로로서 이념을 달리하는 포로들에게 가혹한 폭력을 휘둘렀던 자다. 때문에 그가 중립국행을 선택했을 때 매우 놀랐다는 중립국행 선택자와의 인터뷰를 소개한 바 있다. 위 인용문에서 지기철에 대한 공포를 드러내는 중립국행 선택자들 역시 이러한 지기철의 이전 전력을 알기 때문에 공포스러워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50) 여기서 ‘남미파’는 지기철을 위시한 ‘반공’을 표방하는 포로 무리로, 중립국을 거쳐 반공 국가인 멕시코나 브라질, 미국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가진 자들이다. ‘인도 잔류파’는 인도에 남고자 하는 이들로, 당시 남한은 인도가 반공을 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친공 국가로 규정하고 있었다. 때문에 이들 중립국행 포로 중에 강한 반공의식을 드러내지 않

실제로 지기철은 중립국행 포로들은 철저히 ‘반공포로’ 집단이며 그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제시되어 있다.⁵¹⁾ 즉 그는 남측도 북측도 아닌 제3의 길을 찾아 중립국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념 전쟁을 다른 장소에서 이어가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이처럼 남한에 대한 강한 친밀도를 드러내고 있음에도 그가 중립국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해석의 여지가 많은 대목이다. 이와 같이 중립국을 선택한 자들 사이에서도 이념전은 현재진행형이었고, 포로수용소에서 벌어졌던 목숨이 달린 폭력 사태는 어디에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었다. 지기철 그룹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들이 어떤 이유로 이들과 다른 숙소를 요청했는지 그들의 목소리로는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고, 이들이 ‘친공’ 의식을 가졌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이념적 갈등에서 발로한 폭력 사태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서야 이들 간의 다른 갈등의 여지를 생각하기는 힘든 것이 이 현상에 대한 합리적 해석이다. 주영복의 수기 속에서 지기철을 중심으로 한 무리는 이후로 인도에 당도해서도 조금이라도 ‘반공의식’에 불철저한 사람이 발생하면 과격한 공격성을 드러냈다. 그리고 포로들이 반공정신으로 푹푹 뭉친 하나의 정체성을 유지하기를 강조·강제한다.⁵²⁾ 이런 사정은 이들이 체제 이념으로 사람들을 묶어맨 전장으로부터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나왔지만 정신적으로는 그러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념 갈등으로부터의 탈출을 방해한 세 번째 관문은 외교 문제와 관계된다. 냉전 체제는 1960년대 후반 미국과 소련 사이의 갈등이 완화되기까지 그 대립 양상이 악화 일로를 걸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립국행 선택자들이 1954년 인도에 도착한 이래 2년이 되도록 그들을 받아주는 나라를 확보하지 못해 인도에 있는 동안, 그리고 이후로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지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동안에도 이들은 남한과 북한의 체제 경쟁에 승패를 가르는 지표 중 하나였다.⁵³⁾ 중립국에 당도한 이들 중에는 중립국을 포기

고 인도에 잔류하고자 한 이들에 대해 지기철 등은 이념적으로 ‘친공’이라고 규정하고 적대시한 것이다.

51) 주영복, 앞의 책, 50-53쪽. 한수산의 글에서도 지기철은 자신뿐 아니라 중립국행 선택자들을 모두 ‘반공포로’로 규정하고 있다.

52) 위의 책, 52-53쪽.

53) 한국전쟁의 포로교환이 진행되는 동안 이들 중립국행 선택자들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다

하고 다시 북한이나 남한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들이 생겼고 인도에 정주하기를 선택하는 자들도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남한 및 자유진영과 북한 및 공산진영이 각자 체제의 우월감을 제시하는 근거로서 국내외적 선전의 도구가 되었다. 이에 일종의 외교전이자 사상전의 연장으로 남과 북에서는 각각 중립국 선택 포로들을 포섭하려는 작업을 수행했다.⁵⁴⁾ 상황이 이러했기에 남한에서는 중립국행을 선택한 포로들이 인도에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납치된 자들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 사실은 1990년대가 되면서 바로 잡히고, 비로소 이들은 국제 난민으로 인식되었다.⁵⁵⁾ 중립국 인도 역시 이들에게 제자리를 찾아주는 일의 진행이 자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여 국제사회 내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였기에 이 문제 해결을 통해 자신들의 체면을 세울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을 뿐, 중립국행 선택자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았다.⁵⁶⁾ 중립국행 선택자들의 디아스포

양했다. 유엔의 중립국송환위원단과 인도는 중립국행 선택자들에게 개개인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존중해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남한의 경우 이들은 반공의식을 견지한 친남한 성향의 한국인으로 보고 인도나 유엔이 이들의 귀환을 막고 있다는 주장을 했다. 북한은 이들을 인도 및 유엔에 의해 북한으로의 귀환이 막혀 있는 피해자인 자국민이라 주장했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은 이들의 마음을 돌려세우는 것으로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목표에서 기인했다. 이후로 이들이 인도로 향해 그곳에 정착한 뒤로 남한이나 북한에서 이들은 조국을 등진 자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그 정체를 강조하는 측면은 줄어든다. 그렇지만 이들을 데려옴으로써 체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 시도는 지속적으로 있었다. 한편 남한의 경우에는 최인훈의 「광장」이 발표되면서 중립국행 선택자들을 이데올로기적 억압과 그에 따른 피해자로 보는 관점에서 이해되기도 한다. 80년대가 지나면 이들과 관련된 한수산의 르포르타주와 방송 등이 방영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살아나게 되고 한국에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들은 외교 분쟁의 대상에서 디아스포라로서 받아들여진다. 인도에서 이들 중립국행 선택자들은 이념에 크게 구애됨 없이 자국의 이미지를 순화하거나 유엔의 원조금을 받을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는 정도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등 남미 여러 국가들에서는 일종의 노동이민 정도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멕시코에서는 냉전 체제와 관련한 자국 내 정치적 혼란에 의해 이들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한 바 있다. 김혜연, 앞의 논문; 정병준, 앞의 논문, 2018; 정병준, 「최인훈의 「광장」과 중립국행 76인의 포로」, 『역사비평』 126, 역사비평사, 2019; 이봉범, 「귀순과 심리전, 1960년대 국가심리전 체제와 귀순의 냉전 정치성」, 『상허학보』 59, 상허학회, 2020 등 참조.

54) 전갑생, 앞의 논문, 2010; 이선우, 앞의 논문, 2013; 정병준, 앞의 논문 2018 등 참조.

55) 전갑생 앞의 논문, 2010, 102쪽; 이선우, 앞의 논문, 337쪽.

56) 주영복, 앞의 책, 1993, 194쪽.

라 상황은 이처럼 냉전 시대 국제 질서가 낡은 기묘한 교착 상태였다.

외교적 문제와 연결해 현동화와 지기철이 주영복의 수기에 등장하는 모습은 눈여겨 볼 만한 부분이다. 주영복은 중립국을 선택한 이후 남한도 북한도 더 이상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의 뿌리가 되지 않았기에 반공의식을 강조하는 지기철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는 이들 현동화나 지기철의 모습에서 몇몇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포착해 서술한다. 하나는 인도에 당도한 지 1년이 넘어 인도 당국이 중립국행 선택자들의 갈 곳을 적극적으로 탐색하지 않는 양상과 관련해 지기철이 분노하는 대목이다. 그 상황에서 지기철은 자신들을 '모두' 남한에 보내달라고 동료들과 의논도 없이 인도 관리자에게 요구한다. 이 행동에 대해 주영복이 의구심을 내보이는 대목이 나온다. 동료 중에 자기처럼 남한에 갈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말을 지기철이 계속해서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 심층에는 지기철이 당시 외교 상황과 연계해 남측에 유리하게 이념전을 끌고 가고자 무리한 행동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한표진(본명 한표구로 추측됨)이라는 자가 주영복이 친하게 지내는 무리 사이에 늘 억지로 따라붙어 그들과 함께 했던 대목이다. 한표진은 주영복 무리가 나는 긴밀한 이야기를 지기철에게 고자질해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는 이들이 남한 정부와 공식적으로 소통하던 시기는 아니지만 사실상 남한 정부가 기대하는 대로 행동한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을 암시한다.⁵⁷⁾

'중립'이 자유진영이나 공산진영으로부터 자유로운 제3의 영역이라면, 지금 살펴본 것처럼 중립국을 선택한 이들이 '중립'이 실현된 순간을 경험한 바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전세계에 퍼져 있던 팽팽한 진영 대결의 각축전 속에서 중립 지대는 진영 논리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라기보다는 어느 쪽에서 획득하게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주인 없는 땅' 정도일 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립국 선택자들 역시 중립국에 대한 의식에서 진영 논리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에 대한 생각은 두드러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57) 정병준 앞의 논문, 2018, 5-6쪽 참조.

5. 제3지대의 존재 불/가능성 앞에서

이와 같이 인도에서 중립국행 선택자들이 있었던 중립의 영역은 “송환과 정주 사이의 시공간”⁵⁸⁾이면서 동시에 지속되는 이념 갈등의 지대였으며, 각자 정착한 이후에도 이념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로운 영역에 닿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주영복은 ‘중립’ 혹은 ‘제3세력’이라는 말이 북쪽에서는 ‘반동’을, 남쪽에서는 ‘빨갱이’를 뜻하기 일쑤이며 “사회에 대한 비판도, 제3의 길에 대한 고민과 노력도 모두 모두 반동과 빨갱이란 수갑을 차고 차디찬 동토의 땅에 묻혀야 했”⁵⁹⁾다고 한탄한다. 주영복이 사용하는 ‘중립’의 의미는 대안적 삶의 공간이나 새로운 주체적·사상적 가능성을 구현한 자율성의 영역을 의미할 것이다. 애초에 자신은 중립주의자가 아니라는⁶⁰⁾ 그의 인터뷰 내용은 그가 꿈꾼 이런 새로운 가능성을 남한에서 선양하고 싶었으나 전쟁 포로라는 이름 하에서 그것이 불가능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철학적 기반이 있었기에 주영복은 최인훈의 「광장」 속 주인공 명준의 ‘실제 주인공’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된 것이라 하겠다. 이후로 한반도로부터 한참이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여러 나라를 거치는 동안 그가 잠정적으로 내린 제3지대의 가능성은 “국제주의” 즉 “국경이 없이 모든 사람이 화목하게 살아”⁶¹⁾가는 상태다. 국적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소속감을 기준으로 삶을 이어가는 것을 지극히 당연시하는 현대인들에게 이러한 주영복의 제3지대 논리는 불가능에 가깝게 여겨진다. 사실상 그가 찾아 헤매던 제3지대 혹은 중립의 영역이 그의 삶 속에서 실현되었다고 하기도 힘들다.

문명철은 이념 갈등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지대를 찾는 방법으로 정치나 이념으로부터 아예 거리를 두고 국가적 정치적 정체성을 신을 향해 가기 위한 수단으로 상징하는 길을 택했다. 문명철이 중립국에서 보여준 삶은 압도적으로 입지전적이라 할 만하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신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신학과 외국어를 공부하고 대학을 마치면서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유학

58) 김혜인, 앞의 논문, 56쪽.

59) 주영복, 앞의 책, 1993, 28쪽.

60) 「6.25 재조명 특별 대담」, 앞의 글, 27쪽.

61) 위의 글, 27쪽.

을 다녀오고는 대학교수까지 되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지극히 인간적인 내적 외적 갈등이나 주변의 동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는다. 오직 신을 찾고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스승과 교수, 상급 목사, 교인 권력자들과의 교류만이 의미있게 포착되는 경향이 강하다. 인도나 브라질에서 대학 교육을 받고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 동안에 대한 기록에서 친구나 동료에 대한 유의미한 기록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관련해 지기철의 인터뷰에서 문명철이 미국 유학 시절 “말이 없고 늘 혼자였”으며 자기 방 문앞에 “미스터 문, 국적 없음”으로 적어두고 자신이 “이 세상의 어디에서도 오지 않았다고” 써 놓았다고 한다.⁶²⁾ 그는 주변 동료들과는 철저히 관계를 끊고 오로지 자기 목표에 매진한 것이다. 한 브라질 여성과 연애를 하고 결혼을 결심했을 때 그 이유로 그녀가 교인으로서 품행이 훌륭하고 목사로 살아갈 그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⁶³⁾이라고 했을 뿐, 그녀와의 사랑이나 연애감정에 대해서는 거의 서술하지 않는 대목도 문제적이다. 그러다 어느 순간 아내가 그를 외면하게 되는 부분에서는 그 상황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는 있지만 아내가 왜 그와의 관계를 차단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끝내 알지 못하고 알려 하지도 않는다. 이런 식으로 문명철은 신 중심으로 생각하고 신에 의탁하는 현실을 만들어내기에 골몰한다. 신에 귀의한 삶을 살아가는 종교가의 입장에서 그의 삶은 분명 매우 모범적이다. 하지만 그러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 그는 현실의 희로애락을 포기했고, 실제의 삶은 종교 안에 스스로 고립되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그의 선택은 어쩌면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들었을 전쟁과 포로수용소 체험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어막이, 그 기억보다 강한 신을 향한 강력한 복종이지 않았을까 한다. 그런 점에서 그의 제3지대는 전쟁포로였던 문명철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해주는 현실 너머의 세계,

62) 한수산, 앞의 글, 234쪽. 이 표현은 1980년대 중반의 시대상황 속에서 국적이 없는 사람은 그 어디에서도 인간으로서의 부리를 가질 수 없음을 전제로 한 표현으로 제한해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는 달리 말해 문명철이 그토록 강고한 당대 사람들의 에피스테메를 깰 정도로 국적이 발생시키는 갈등에 대해 그가 심각한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63) 문명철, 앞의 책, 268쪽.

인간계의 상위에 상정되어 있는 더 높은 단계로서의 신의 세계였을 것이다.

현동화의 경우에는 특별히 제3의 영역으로서의 중립국에 대한 관점은 주영복이나 문명철이 보이는 추상적 개념적 측면과는 달리 그다지 부각되어 서술되지 않는다. 그가 시종일관 제시하고 고평하는 것은 실용적이고 세속적인 가치다. 그가 한국을 떠나는 것도 그가 한국에 남아있을 때 결코 벗어날 수 없을 '북에서 온 전쟁포로' '빨갱이'라는 그의 정체 때문이다. 남에도 북에도 함께 살 사람이 없는 마당에 그런 꼬리표까지 달고서는 남한에서 결코 그가 원하는 모습대로 살 수 없다는 판단이 선 것이다. 즉 그는 문명철처럼 이념도 정치도 중요하지 않았고, 문명철과 달리 정신적 이상세계가 아닌 현실 세계의 물질적 풍요가 중요했던 셈이다. 이를 만끽할 수 있는 가능성의 세계, 그가 마음껏 기량을 뽐낼 영토에 당도하는 일이 그에게는 유일한 관심거리이다. 그의 중립국행 선택은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기대에 의한다. 결국 그에게 제3지대란 새로운 가치를 구현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또 다른 한국이었다. 그러므로 그에게 제3지대는 사실상 한국의 연장(延長)이라 할 수 있겠다.

장용학의 「요한시집」 속 '누혜'가 포로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면, 최인훈의 「광장」에서 중립국행을 선택하는 인민군 포로 '명준'은 인도로 향하는 배에서 목숨을 끊고 만다. 아마도 이것이 두 작품이 발표되었던 1954년과 1960년 당시 남한의 현실 속에서 구현할 수 있는 제3지대 필요성 표현의 최대치이지 않았을까 한다. 아무리 소설 속이라 해도 '인민군' '누혜'나 '명준'에게 쉽사리 생명과 자유를 줄 수 없었던 것이 당시 한국사회의 시대적 조건이자 집단경험의 무계이며 그 한계였을 것이다. 때문에 '명준'은 아우스트리아호를 벗어나지 못했고, 그가 찾고자 한 이념으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제3지대 탐색은 실패했다. 포로수용소의 '누혜'가 살아남아 중립국으로 가는 '명준'으로 그 생명을 연장했지만 결국 중립국에 당도하지는 못한 셈이다. 그리고 실제로 인도에 당도해 살아갔던 중립국 선택자들의 제3지대 탐색 역시 수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 각자의 입장과 한계 속에서 절반의 성공 혹은 절반의 실패에 머물고 만다.

이 지점에서 주영복이 보여주는 사고 방식은 중요한 참조점을 제공한다.

『76인의 포로들』을 보면 그가 인도에 도착해 그곳을 알아가고 적응해가는 일련의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처음 인도에 내렸을 때 그는 호화롭고 안락했던 아우스트리아호 내부와 너무나 달라 “선내 세계와 선외 세계는 마치 그것이 지옥과 낙원처럼 달라보”임을 토로하며 놀란다. 배 주변으로 거지가 달려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헐벗고 있었으며 거리에 악취도 심했다. 주영복은 이 지점에 대해 놀람을 표하지만 그럼에도 가치 판단을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나는 그때서야 알 수 있었다. 인도는 지옥과 낙원이 함께 있다는 것을, 나아가 우리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로는 것을 안 것이다. 인도는 영광을 모르는 가난과 가난을 모르는 영광이 함께 존재하는 그런 곳이었다”⁶⁴라고 의미부여한다. 불과 얼마 전까지 생사가 어찌될 지 알 수 없을 만큼 암담한 수용소 생활을 했던 그가 급작스레 아우스트리아호에서의 편안한 시간을 보냈고 이제 인도에 도착하니 다시 누추한 삶을 목도하게 되는 이 커다란 격차 앞에서 주영복은 삶의 진리가 갖는 모습을 명약관화하게 보게 된 것이 아닐까. 이러한 인식적 전제 하에서 주영복은 인도인의 삶의 태도와 인도 사회의 각종 제도, 종교, 역사 등을 살핀다. 이를 통해 그는 그가 서 있는 중립국이라는 좌표의 의미를 새롭게 조망하고 대안 세계를 그의 내면과 외부에서 동시에 탐색하고 있었다. 이는 여러 수기에서 현동화나 지기철이 남한과 미국이 지향하는 이념과 문화를 중심에 두고 인도 혹은 인도적인 것들을 낚잡아 평가하는 방식과는 상반되고, 현실의 많은 부분을 신의 이름으로 외면한 문명철과도 다른 관점이다. 낯선 대상을 자기 식으로 규정하고 더 이상의 새로움을 보려 하지 않는 방식으로는 다름의 발견을 통한 변화를 이룰 수 없다. 인도의 다양한 문화와 자연 속에서 자신의 전쟁 경험과 한국사회를 성찰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고 세상을 향한 질문을 지속하는 시각이 주영복의 수기에는 담겨 있다.

이러한 관점은 주영복이 전장을 회고하고 기록하면서 개인의 삶에서 민주주의와 자유가 보장되는 방식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기준으로 남한과 북한 체제를 모두 비판하고 인도 잔류파와 남미파의 반목하는 양

64) 주영복, 앞의 책, 1993, 75-76쪽.

상을 안타깝게 여기는 장면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중립국행자들을 받아줄 국가가 결정되지 않아 방황하면서 찾았던 대안적 땅으로 사람들이 염두에 두고 있지 않던 '유고'에 대한 말을 꺼낸 부분⁶⁵)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유고는 냉전 체제가 고착화되고 있던 세계 정세 속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일대의 주요 신생 독립국들을 중심으로 그 어떤 강대국에도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자신들의 국가 정체성을 강화해나가기로 목적으로 하는 '비동맹' 노선을 표방했던 국가 중 하나다.⁶⁶) 주영복은 어느 나라에서 자신들을 받아줄지 알 수 없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서도 익숙한 사회로 회귀하는 방식이 아니라, 1955년 반동회의를 통해 그 존재감을 세계에 알렸던 비동맹노선에 대한 기류를 감지하고 정치적 제3지대에 대한 탐색을 지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 노선에 북한이 참여하고 남한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영복을 포함한 중립국 선택자들 사이에서 이 국가에 대한 논의가 더 진척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영복이 민주주의적 사회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기존 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여지를 갖는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탐색을 지속하고 있었음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남한과 북한 혹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을 넘어서서 다른 가능성의 필요성을 열린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탐색하는 그의 시각은 그가 인도를 이해하고 인도에서 배움의 자세를 가지던 태도와 그 형태적 유사성을 갖는다. 앞서 언급했듯 그의 제3지대 탐색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전망에서 멈췄다. 하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 제3지대의 탐색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

한국사회는 세계 열강-식민지 체제가 냉전 구도로 이전하는 과정을 열전으로 맞이하고 분단이 고착화 되었으며, 이후로 반공 이념을 토대로 한 오랜 독

65) 위의 책, 283-285쪽. 당시 유고는 공산권 국가였지만 다른 사회주의권 국가들과 달리 민족사회주의를 표방하며 소련과 거리를 두고 자유주의 국가들과도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국가였다.

66) 장세진, 「안티테제로서의 '반동정신'과 한국의 아시아 상상(1955-1965)」, 『사이』15, 국제한국문화문화학회, 2013; 김태경, 「비동맹운동 60주년에 돌아보는 냉전기 북한의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인식 변화」, 『역사문제연구』46 역사문제연구소, 2021; 오창은, 「결여의 증언, 보편을 향한 투쟁」, 『한국문학논총』72, 한국문화회, 2016 등 참조.

재체제를 겪었다. 2차대전을 겪고 전범국 일본이 아닌 한반도가 분단되어 전화에 휩싸였던 이 모든 순간들이 갖는 부조리는 이어지는 독재 정권과 민주시민의 응전으로 치환되었다. 그리고 각각의 시기에 만들어진 풀리지 못한 시대적 한계의 부산물들은 한국사회에 비민주적 폭력의 요소로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다. 이념으로 나눌 수 없는 전장의 회색지대와 개개인들의 부조리한 경험들은 많은 부분 밝혀지기도 했지만 아직도 공식적 기념의 장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남아 있다. 포로수용소에서 벌어진 또 하나의 전쟁과 중립국으로 간 포로의 존재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현실에서 기인한다. 주영복이 그랬던 것처럼 포기없는 제3지대 탐색을 이어가는 과정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고, 그 과정은 자의로든 강제로든 특정 이념에 얽매이지 않아야 할 것이며 스스로 책임지면서 이루어나야 할 일이다. 한반도에 종전을 앞당기고 남북 간의 새로운 관계 경험을 축적할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 이들 중립국행 선택자들의 고뇌에 대해 귀기울여야 하겠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문명철, 『슬픔도 고통도 짜우짜우』, 도서출판 두란노, 1997.
주영복, 「망향」, 『동아일보』, 1962.6.29.-1963.2.11.
_____, 『76인의 포로들』, 대광출판사, 1993.
_____, 『내가 겪은 조선전쟁1, 2』, 고려원, 1991
한수산, 「제3국으로 간 반공 포로들의 그 후」, 『마당』46, 1985.
현동화 구술, 정동현 씬, 『격랑의 세월 인도에 닦을 내리고』, 나무와 숲, 2003.

2. 논저

- 강인철,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백산서당, 1999.
김경학, 「인도 정착 한국전쟁 중립국 선택 포로의 이야기」, 『인도연구』9(1), 한국인도학회, 2004.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6.
김병로, 「북한 종교정책의 변화와 종교실태」, 『북한선교』2, ACTS북한선교학회, 2003.
김성보, 「전쟁과 농업협동화로 인한 북한 농민생활의 변화」, 『동방학지』143,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8.
김선호, 「국가수립 전후 북한의 병역제도와 모병 실태」, 『군사』13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4.
김태경, 「비동맹운동 60주년에 돌아보는 냉전기 북한의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인식 변화」, 『역사문제연구』46 역사문제연구소, 2021.
김학재, 「전쟁포로들의 저항과 반공오리엔탈리즘-한국전쟁기 유엔군 포로수용소 내 사건들을 중심으로」, 『사립』36, 수선사학회, 2010.
_____, 『판문점 체제의 기원』, 후마니타스, 2015.
김혜인, 「망명의 기록, 난민의 시간」, 『상허학보』48, 상허학회, 2016.
남덕우, 「북한 종교정책에 따른 신앙생활 실천방안」, 『신학과 철학』42, 한국실천신학회, 2014.
서은주, 「한국전쟁의 기억과 글쓰기-거제도 포로수요소 체험을 중심으로」, 『작

- 문연구』12, 한국작문학회, 2011.
- 서흥석, 「조선인민군 총원정책의 변화와 정체성 형성」, 『역사와 현실』104, 한국역사연구회, 2017.
- 양준석, 「1954년 제네바정치회의에서의 ‘중립국’ 문제」, 『한국정치학회보』57, 한국정치학회, 2023.
- 오세희, 『65포로수용소』, 만인사, 2000.
- 오창은, 「결여의 증언, 보편을 향한 투쟁」, 『한국문학논총』72, 한국문학회, 2016.
- 이동현, 「한국전쟁 후 ‘반공포로’에 대한 기억과 기념」, 『동아시아문화연구』40,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06.
- 이봉범, 「귀순과 심리전, 1960년대 국가심리전 체계와 귀순의 냉전 정치성」, 『상허학보』59, 상허학회, 2020.
- 이선우, 「한국전쟁기 중립국 선택 포로의 발생과 성격」, 『역사와 현실』90, 한국역사연구회, 2013.
- 이영훈, 「북한의 화폐경제: 이행과 변화전망」, 『통일정책연구』15(1), 통일연구원, 2006.
- 이완범, 『한국전쟁: 국제전적 조망』, 백산서당, 2000.
- 임세화, 「포로라는 이념: 한국전쟁포로서사와 자기구성의 가능성」, 『상허학보』46, 상허학회, 2016.
- _____, 「한국전쟁의 의도적 망각과 전쟁포로의 기억 투쟁」, 『동서인문학』67, 계명대 인문과학연구소, 2024.
- 장세진, 「안티테제로서의 ‘반동정신’과 한국의 아시아 상상(1955-1965)」, 『사이』15,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3.
- _____, 「은유로서의 포로」, 『상허학보』46, 상허학회, 2016.
- 장용학, 「요한시집」, 『장용학 소설선』, 지만지, 2014.
- 전갑생, 「88인의 포로, 떠난 자와 돌아온 자, 남아서 반공투사가 된 귀환포로들」, 『MINJOG21』117, 민족21, 2010. 12.
- _____, 「거제도포로수용소 설치와 포로의 저항」, 『제노사이드연구』2, 한국제노사이드연구회, 2008.
- 정병준, 「중립을 향한 ‘반공포로’의 투쟁」, 『이화사학연구』56, 이화여대 이화사학연구소, 2018.

_____, 「최인훈의 「광장」과 중립국행 76인의 포로」, 『역사비평』126, 역사비평사, 2019.

_____, 『한국전쟁-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돌베개, 2006.

정찬대, 「국민 만들기의 폭력적 동화」,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선인, 2010.

하영선, 『한국전쟁의 새로운 접근: 전통주의와 수정주의를 넘어서』, 나남, 1990.

Giorgio Agamben, *What Is an Apparatus? and Other Essays*, 양창렬 옮김, 『장치란 무엇인가』, 난장, 2010.

<Abstract>

The Im/possibility of the Third Choice: War Memoirs of Prisoners of War Repatriated to Neutral Nations

Lee, Hee-Won

During the Korean War, prisoner-of-war camps became spaces where captives with differing motives for participation and divergent political ideologies were intermingled, forming yet another battlefield. Following the decision in 1953 to implement voluntary repatriation, the emergence of prisoners who chose relocation to neutral nations further intensified violence within the camps. This study examines the circumstances and conflicts faced by these neutral-nation-bound prisoners through four memoirs: Ju Young-bok's *My Experience of the Korean War Vols. 1 and 2* and *Seventy-Six Prisoners*, Moon Myung-chul's *Even Sorrow and Pain, Ciao Ciao*, and Hyun Dong-hwa's *Turbulent Years: Anchoring in India*. Adopting perspectives of transecting war history and relational history, the study explores how these individuals sought a "third path" through political possibility, religious conversion, or the pursuit of secular benefit amid the violence and death imposed by the war apparatus. However, the fact that they were threatened by both the South and the North during the repatriation process and forced into desperate escapes, that severe ideological conflicts persisted even among neutral-bound prisoners aboard ships to India, and that they remained constrained by the diplomatic limitations of Cold War geopolitics, ultimately revealed the practical impossibility of neutral relocation itself. Nevertheless, their very existence stands as evidence of an unyielding search for a third way and offers a critical lens through which to reconsider the enduring divisions and antagonisms within Korean society.

* Key Words: Korean War Memoir, Prisoners of War to Neutral Nations,
Joo Young-bok, Moon Myung-chul, Hyun Dong-hwa

· 논문투고일: 2025년 10월 12일 · 심사완료일: 2025년 11월 17일 · 게재결정일: 2025년 11월 26일

